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7

▶ 68회 예고
수시마 부왕비의 아들 니그로다는 7세가 되자 스승 마하바루나의 권유로 출가한다. 전생에 수행자였던 니그로다는 출가하자마자 아라한과를 얻는다. 한편 띠쉬아락시따 왕비는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낸 뒤 또 다시 음모를 꾸민다.



전타기리가, 지옥궁전 옥주가 되다

아쇼까왕의 화려한 대관식은 거대한 축제 같았다. 하루 종일 궁중악대의 연주소리가 왕궁에 울려 퍼졌다. 대연회장 식탁에는 공작새 1만 마리와 염소 수백 마리 분의 고기가 올랐다. 빵은 산처럼 쌓였고, 커리는 수십 개의 동제 통에 담겨 나왔다. 대관식에 참석한 수십 만 명의 성민들은 배불리 먹고 양껏 포도주를 마셨다. 수행자들도 내성의 궁중정원 숲 그늘에서 특별한 공양을 받았다. 브라만교, 불교, 자이나교 수행자는 누구나 다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각국의 축하사절단이 참석한 대연회장의 축하연은 밤새 계속되었다. 축하연 도중에 대연회장을 나온 아쇼까는 수상 라다굽따와 함께 왕궁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6만 명의 수행자들이 공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대왕님의 대관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축하사절이야 당연하지만 수상의 말대로 6만 명의 수행자들이 나를 위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오. 나는 6만 명의 수행자들에게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날마다 공양을 올려야겠소. 수행자들에게 알리시오."

"수행자를 예우함은 대왕님의 선정을 알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동안 내 손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 내 평판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될 것 같소. 그렇지 않소?"

"대왕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축하사절단 앞에서 대관식을 치르셨으니 이제부터는 허리에 차신 칼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칼을 휘두를 신하가 있겠소?"

"감옥 책임자인 옥주(獄主)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아쇼까는 라다굽따의 조언에 미소를 지었다.

"감옥이라고 하지 말고 지옥궁전이라고 하시오. 지옥궁전의 옥주를 선발해 보고 하시오."

"출중한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왕궁다실을 나온 라다굽따는 친위대장을 찾았다. 친위대장도 대연회장을 떠난 듯 보이지 않았다. 대연회장은 파장 분위기로 어수선했다. 그러나 강가강 강변은 여기저기 켜진 횃불로 대낮처럼 훤했다. 궁중악단은 강변으로 자리를 옮겨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친위대 조장이 라다굽따에게 다가왔다.

"친위대 대부분의 군사가 강가강으로 나갔습니다."

"친위대장도?"

"예, 저만 대연회장에 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위대장을 불러오게. 급히 대왕님의 명을 전해야겠네."

라다굽따는 대연회장 한쪽에 앉아서 자작으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잠시 후 친위대 조장이 라다굽따에게 와서 보고했다.

"마침 대장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알았네. 조장도 한 잔 하시게."

"아닙니다. 연회장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정리가 끝나면 여기서 수고한 군사들에게 내 이름으로 한 잔 내겠네."

"고맙습니다."

그때 친위대장이 잰걸음으로 왔다. 라다굽따가 일어나 친위대장을 맞았다. 친위대장은 라다굽따가 따라주는 술을 마셨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다. 아쇼까를 경호하고 경비 순시를 하느라 한 치의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친위대장은 원래 칼라따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라다굽따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라다굽따 역시 그를 믿었다. 아쇼까와 비밀스럽게 나누었던 이야기도 그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대왕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대왕님께서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소."

"그렇다고 칼 없이 통치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왕님 대신 손에 피를 묻혀야겠지요."

"저에게 왕명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오. 감옥의 우두머리를 찾아오라는 것이오. 감옥의 이름을 대왕님께서는 지옥궁전이라고 했소. 그러니 앞으로 감옥의 우두머리는 대신급이 될 것이오."

"대왕님 명대로 즉시 지옥궁전의 옥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대연회장에서 대취했다. 라다굽따는 친위대 군사의 도움을 받아 저택으로 돌아왔다. 라다굽따는 침대에 올라 누우면서 흡족해 했다. 아쇼까가 빈두사라왕 때처럼 아침마다 수행자들을 공양하기로 했고,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친위대장이 라다굽따가 상근하는 왕궁의 수상 집무실로 찾아왔다. 수상 집무실에도 따로 다실이 하나 있었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수상님, 지옥궁전 옥주 후보를 물색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옛 마가다국 땅 사람인데, 그곳의 사형수들을 도맡아서 도살자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옛 마가다국 사람들에게 전타기리가라고 불렸다. 전타기리가는 '공포의 산'이라는 뜻이었다.

"지옥궁전에 들어올 생각은 있던가요?"



"불러만 준다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 있소?"

"외성에 와 있습니다. 수상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대왕님께 알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데리고 오시오. 내가 먼저 그를 보겠소."

"친위대 군사를 시켜서 즉시 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외성에 대기하고 있던 전타기리가가 친위대 군사와 함께 말을 타고 왔다. 라다굽따는 그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체격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왜소한 체격에 얼굴은 백짓장처럼 창백했다. 외모는 학자풍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 같았다. 라다굽따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옥궁전의 옥주가 될 수 있지, 하고 의아해했다. 그러자 친위대장이 라다굽따의 표정을 보고는 말했다.

"수상님, 보기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 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시오."

라다굽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다. 그러자 친위대장이 무표정한 전타기리가에게 물었다.

"대왕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왕님을 위해서 그 자를 죽이겠습니다."

"빠딸리뿌뜨라 성민들이 다 그렇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민들을 몰살시켜버리겠습니다."

전타기리가는 허약한 외모와 달리 말할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다. 라다굽따는 그에게서 차가운 살기를 느꼈다. 옛 마가다국 사람들이 그를 왜 전타기리가(공포의 산)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었다.

이윽고 라다굽따는 전타기리가를 데리고 정궁 접견실로 향했다. 전타기리가는 왕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접견실로 가는데도 조금의 동요가 없었다. 시종 무표정한 얼굴로 라다굽따를 뒤따라갔다. 아쇼까가 전타기리가를 보더니 조금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쇼까가 물었다.

"그대는 지옥궁전 옥주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왕님, 자격은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저는 지옥궁전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한 번 말해 보라."

"죄를 지어 지옥궁전에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지옥궁전이란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 것입니다. 공포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또 한 가지 원한다면 지옥궁전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처형장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죄인들은 순간적이나마 아름다움에 취해 죽는 두려움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전타기리가의 말에 아쇼까는 기묘한 매력을 느꼈다. 악마가 손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쇼까가 말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또 원하는 것이 있는가?"

"옛 마가다국 땅에는 불교사원이 많습니다. 어느 날 불교사원을 지나다가 지옥에 대한 불경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불경대로 지옥궁전을 꾸미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구나."

아쇼까는 전타기리가에게 지옥궁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권을 주었다. 라다굽따에게 지원해 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수상, 전타기리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오."

"대왕님, 지옥궁전의 옥주를 임명하셨으니 앞으로는 대왕님 뜻대로 통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쇼까 접견실을 나온 라다굽따가 전타기리가에게 물었다.

"불경에는 지옥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소?"

"서너 개의 지옥은 똑같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겠습니다."

전타기리가는 라다굽따에게 자신이 불교사원에서 들었던 불경 속의 10개 지옥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다음과 같았다.

도산지옥 : 칼날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산길을 걸을 때마다 칼에 찔리는 지옥.

화탕지옥 : 펄펄 끓는 무쇠 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지옥.

검수지옥 : 칼날이 숲처럼 우거져 걸어갈 때마다 살이 한 점씩 떨어지는 지옥.

발설지옥 : 집게로 혀를 길게 뽑아 소가 밭을 갈듯 쟁기로 갈아버리는 지옥.

독사지옥 : 독사들에게 온몸이 감긴 채로 물려 뜯기는 지옥.

거해지옥 : 톱으로 뼈를 썰고, 몸을 산채로 토막토막 자르는 지옥.

철상지옥 : 쇠절구에서 짓찧고 나서 쇠못들이 박힌 침상에 눕혀 놓는 지옥.

풍도지옥 :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차디찬 강풍에 고통 받는 지옥.

흑암지옥 : 밤낮이 없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갇히는 지옥.

라다굽따는 전타기리가의 지옥 이야기에 몸서리쳤다. 그러나 그가 있기 때문에 아쇼까가 손에 피를 적게 묻힐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쇼까의 어머니 다르마 대비의 소원이기도 했다.〈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학 · 점술학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